

# “40분 넘게 버스 기다렸다”... 파업소식 몰라 시민들 당황·분통

## 광주 시내버스 갑작스런 파업... 출근길 혼란 “시민 불모 삼을 만큼 임금 열악하나” 비난도

“시민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가야캠핀스필드 야구장 앞 버스정류장. 20여명의 시민들이 줄을 선 채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렸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뒤늦게 파업 소식을 알게 된 시민들은 서둘러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앞으로 움직였다. 출근 시간 파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당혹감은 더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려던 학생들은 예기치 못했던 파업 소식에 당황하며 서둘러 가족들에게 휴대전화를 하거나 다른 교통 수단을 찾아 움직이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캠핀스필드 앞에서 98번 버스를 기다

리던 박춘남(69)씨는 “광주여대에서 동료 를 만나 나주 혁신도시로 가야 하는데 버스만 4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파업하는 줄 몰라 평소대로 나왔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만난 차우은(여·22)씨는 “학교 실습 시간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왔는데 15분 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파업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배차 간격이 늦을 줄 예상 못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이날 상당수 시내버스 정류장은 버스를 놓칠 새라 바빠 울라타러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광주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가 평소 일일

**노조 주장과 광주시 현황**

■노조 주장은 광역시 중 임금 가장 열악 대전 수준으로 맞춰달라

■광주시 현황은 재정자립도·개인소득 취약 준공영제 예산도 대전보다 많아

운행 대수(930대)의 73%가량을 운행하는 등 비상 수송차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배차 간격이 최대 50분 넘게 길어졌고 버스 도착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불만이 속출했다. <“시민 불모 삼을 정도나”=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12년 만에 파업을 선택한 가장 큰 배경에는 ‘임금 인상’이 자리잡

고 있다. 광주지역 버스운전원들 사이에서는 인구 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임금이 적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노조가 최근 광주시 중재로 사측과의 협상에서 제기한 임금 인상 마지막선도 현재 월급(4호봉 기준·316만9000원)을 6대 광역시 중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 시내버스 운전원 임금(“·341만 5000원·광주시 기준)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6대 광역단체 중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의 급여가 316만9000원으로 가장 적다는 점을 내세우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광주지역 연간 개인소득은 1405만원. 대전의 1489만원보다 84만원이나 적다. 전년 대비 78만8000원보다 5만2000원 더 떨어진 형편이다. 재정자립도도 대전과 비교가 안된다. 지난해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45.4%. 대

전의 57.5%에 비해 12.1%p 낮다. 지난 2012년에는 두 도시간 격차가 11.7%p였다. 재정자립도, 연간 개인소득마저도 대전에 훨씬 뒤처지는데, 무조건 대전 시내버스 운전원에 맞춰달라는 노조측 요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준공영제 실시로 투입되는 예산도 차이가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에 쏟아부은 세금은 406억원. 대전이 동기간 투입한 세금 346억원보다 많다. 광주와 대전 시내버스 수가 각각 930대·914대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는 예산을 무려 60% 원이나 더 투입하는 셈이다. 버스 노조 주장대로라면 당장, 준공영제 투입 예산을 대전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뒤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생뫓맞은 비정규직 전환 주장까지=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 외에 비규정직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체 운전원 수는 2025명(대전운수 130명 제외)으로 이중 노조원 수는 1309명. 나머지 716명은 비노조원이면서 비정규직원들로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 파업에 돌입했다는 논리지만 비노조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노조원들이 운행해 온 시내버스에 대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호러 버스노조가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파업에 나선 노조측과 사측을 분리 중재하는 자리를 마련,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 도주로 차단 못하고 오인사적 부상까지...구명난 軍 대응

### GOP 추기난사 사건 10km 도보 도주 못막고 40여시간 대치 끝 생포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추기 난사탈영병인 임모 병장에 대한 군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임 병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15분께 전우들에게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소총으로 10여 발의 실탄을 발사한 뒤 탈영해 23일 오후 군과 대치 하다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뒤 생포됐다. 앞서 임 병장은 고성군 금강산로 500m 서쪽에서 군 병력과 대치 중이었다. 특히 임 병장은 범행을 저지르고 18시간 만에 부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고성 제진검문소 부근까지 도주했다. 군의 비상경계 속에서도 그는 예상 밖으로 상당한 먼 거리를 이동했다. 전역 3개월을 앞둔 말년 병장이기 때문에 주변 지형에 밝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군이 도주로를 초기에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 13분 뒤 22사단의 위기조치반이 소집됐는데도 부대에서 사라진 임 병장의 신병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사상자 수습이 먼저였고 부대에서도 경황이 없었던 같다”고 말했다. 군이 제진검문소 주변에서 임 병장과 처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추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자살을 시도한 뒤 강원 아산병원에 도착, 군 관계자와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음 맞닥뜨린 이후 벌인 작전도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병장은 22일 오후 2시23분께 군과 한 차례 총격전을 벌인 뒤 차단선 주변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오후 11시30분께 대범하게 차단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병력이 포위하고 있는 차단선 30m까지 접근했다. 경계 병력은 그에게 수하(암구호)를 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했다.

또 군은 23일 오전 8시40분께는 체포조끼리 오인 사격하기도 했다. 오인 사격으로 진모 상병이 우측 관자놀이를 스치는 부상을 당해 헬기로 강원 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한편 백승주 국방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향후 조치와 관련, “7월을 기한으로 전군에 대한 부

대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면서 “사고 부대의 GOP부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군의 대응조치에 대한 지적이 이는 것과 관련, “사고자의 월복상황에 대한 조치, 민간인 등의 2차 피해 최소화, 위기조치반 소집 및 ‘진돗개 하나’ 발령, 인근 마을에 대한 사고소식 전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GOP 추기난사’에 순직한 곡성 출신 김영훈 하사

##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부사관 지원 “효심 많은 착한 청년 순직 안타깝다”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했던 추기난사 사건으로 순직한 김영훈(23·곡성군 겸면 대흥리) 하사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부사관 지원을 한 효자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하사는 지난 1997년 어머니 신순자씨가 의붓아버지인 권선언(51)씨와 재혼해 낳은 3명의 동생들을 친 동생처럼 보살펴 왔으며 지난 2010년 9월 어머니 신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 가장 역할을 해 왔다. 의붓아버지 권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일용직 노동으로 돈을 벌며 가정을 유지해 왔고 둘째 동생은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데다 신씨의 간병비 등으로 김하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김 하사는 전남조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과학대 호텔조리학과에서 요리사의 꿈을 키워 왔으나 이같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꿈을 포기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남다른 동생들을 아꼈던 그는 홀로 고생하는 권씨와 어려운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부사관을 지원했다. 지난 2013년 9월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11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하사는 군에 입대할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변을 당해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흥리 주민들은 “어린나이에 부모를 여리고 의붓아버지와 어렵게 살아왔지만 힘든 내색없이 아버지와 동생들을 보살핀 효심 많은 착한 청년”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곡성군과 31사단은 곡성기차마을 전동시장 인근 곡성문화센터에 김하사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백기용 수습기자 pboxer@

**월드컵 응원하다 주운 신분증 이용해 술 사려던 고교생 탈미**

○...브라질 월드컵 응원 중 관람석에 떨어진 타인의 신분증을 주운 뒤 이를 술을 구입하는데 부정 사용한 10대 고교생이 경찰서행.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한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은 이날 새벽 5시 20분께 북구 임동 광주-기아캠핀스필드 내 편의점에서 이모(21)씨의 주민등록

증을 내민 뒤 맥주 세 병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눈치 챈 점원 이모(23)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쳤다. 경찰은 친구 이모(18)군과 함께 음원을 하던 중 관람석에 떨어진 남의 신분증을 보고 순간 호기심이 생겨 술을 사러 갔는데, 경찰에서 “(점원) 금방 알아차릴 줄 몰랐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BNC빌딩, 수협, 동명문신시장, 상무역

지멘스 상무점 약명빌딩5층 501호 동명문신시장 아바폴드2차점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